

# 제 주 도

< 제 12 회 >

## 전 국민 속예 술 경 연 대 회 출 연 안 내

일 시 : 1971. 10. 28 ~ 30

장 소 : 전 북 전 주

◎ 말 뛰 기 놀 이

◎ 해 녀 놀 이

출 연 : 제주여자중고등학교 무용단

후 원 : 제 주 도. 제주도교육연구회  
예 총 도 지 부. 제 주 시  
북 제 주 군. 남 제 주 군  
제 주 신 문 사. 제 남 신 문 사  
제 주 방 송 국. 남 양 방 송

## ◎ 입 원

단 장 : 송 근 우  
접 의 : 도 공 보 실  
지 도 : 송 근 우  
단 원 : 양 성 옥 외 16명

## ◎ 말뛰기놀이 (민속놀이부) 30분간

구 성 : 현 용 준  
안 무 : 송 근 우

### 해 설

제주도의 옛풍속에 2월초하루가 되면 이를 영등달이라 부르며 귀덕, 김녕등지에서는 나뭇대 열두개를 세우고 굿을쳐서 영등신을 맞아 들인다음 신을 즐겁게 해드리는 놀이를 마련했다. 애월등지에서는 말머리와 같은 가면을써서 말로 꾸미고 비단 안장을 채워 영등신을 모시고 놀이터로 온다음 여기서 말뛰기 놀이를 하게되는데 이 말싸움이 매우 흥겹게 벌어지게 된다. 이 놀이는 보름이되면 끝났는데 “영등”이라 하였다.

## ◎ 해녀놀이 (민속무용부) 20분간

구 성 : 정 인 수

안 무 : 송 근 우

### 해 설

이 놀이는 제주도 특유의 민속놀이이다.

하루동안의 피곤한 작업이 끝나면 해녀들은 바닷가에 모여 모닥불

을 피워놓고 해녀복을 말리면서 흥겨운놀이가 전개된다. 원시적 해

조음을 들으면서 자란 해녀들에게는 오히려 파도의 울동이 무색할

지경이다. 손에 손을 잡고 춤추는 이들의 울동은 노을이 지는 해

변을 아름답게 물들인다 이들의 주요한 작업도구인 테왁(두렁박)을

두들기며 박자를 맞춘다. 이렇듯이 이 해녀놀이는 바다와 더불어

살아온 도민의 일상 생활을 그린 민속놀이이다.

## 연 혁

- |           |                                    |           |                                       |
|-----------|------------------------------------|-----------|---------------------------------------|
| 1964년 4월  | 제주민속예술단 창단                         | 1967년 10월 | 제8회 전국민속예술<br>경연대회참가<br>(대통령상수상)      |
| 10월       | 제5회 전국민속예술경<br>연대회참가<br>(장려상획득)    | 11월       | 제6회 한라문화제협연                           |
| 12월       | 제3회 한라문화제협연                        | 1968년 10월 | 제9회 전국민속예술<br>경연대회참가<br>(국무총리상수상)     |
| 1965년 10월 | 제6회 전국민속예술경<br>연대회참가<br>(장려상획득)    | 11월       | 제7회 한라문화제협연                           |
| 11월       | 제4회 한라문화제협연                        | 1969년 10월 | 제10회 전국민속예술<br>경연대회참가<br>(문화공보부장관상수상) |
| 1966년 10월 | 제7회 전국민속예술경<br>연대회참가<br>(공보부장관상수상) | 11월       | 제8회 한라문화제협연                           |
| 11월       | 제5회 한라문화제협연                        | 1970년 10월 | 제11회 전국민속예술<br>경연대회참가<br>(장려상수상)      |